

SARS 대란 재연 가능성 높다!

감염증세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 잠복 ... 중국지역 전파 우려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가 잠복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증세가 없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스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홍콩 퀸 매리 병원의 미생물학자 패리트 우 박사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면역체계의 '보병'에 해당하는 항체반응을 일으키는 사스 바이러스의 2가지 항원을 복제해 사스 특이성 100%, 민감성 94% 이상의 사스 검사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의 혈액샘플을 검사한 결과 잠복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검사한 혈액샘플은 2003년 3-5월 사이에 400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한 것과 사스의 핵심적 증세인 폐렴 증상이 없는 병원입원 환자 395명 그리고 2003년 사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스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의료 요원 33명으로부터 채혈한 것이다.

패리트 우 박사는 혈액샘플 중 약 4%가 항체반응이 나타나났다고 밝히고 혈액샘플의 소유자가 사스에 감염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의료기록이 충분치 않아 실제로 사스의 어떤 증세가 나타났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잠복한 사스 바이러스의 보균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스의 가벼운 증세를 겪었거나 전혀 증세가 없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스 바이러스를 전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emical Journal 2004/03/23>